



김 용 화  
(분지 편집장)

**제2차 정부구조조정  
양계업 위상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정책 결정은 시장경제 원리에 따른 효율성 제고보다는 선거시 표를 더 염두에 둔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한다.

그만큼 합리성이 없었다는 말로 함축하여 표현을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 같다. 어느 부문이건 간에 산업이 발전하는 데는 장·단기 계획이 필요하다. 장기 계획은 성과가 더디게 나타나는 반면 잘 처리되면 효과는 매우 크다. 단기 계획에 치중하면 성과는 빠르게 나타나는 반면 자칫 잘못하면 현실에 치우쳐 기반 조성이 제대로 안될 수가 있다.

어쨌든 장·단기 계획이 잘 조화가 되어야지 그렇지 못하면 시간과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게 된다.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후 1차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고, 이제 2차 구조조정을 단행할 예비조사도 끝난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농림부의 변화에 양계인들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다.

양계시책은 항상 다른 축종의 시책 결정 후에 구색 맞추기 식으로 정해진다는 푸념이 많았다. 국민의 정부는 표를 의식하는 정치나 정책 결정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이번의 정부 구조조정 결과에 기대를 걸고 있다. 양계업은 사육기간이 비교적 짧다는 특성과 종사자가 적어 정부로부터 관심이 높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일 것이다. 즉 과잉생산으로

산물가가 폭락하여 양계농가들이 도산하여도 자연 치유에 해결책을 기대하거나, 산물 가격이 상승하여 물가에 영향을 준다면 수입을 검토하는 식이 강했다.

그러나 양계산업은 속성장 종계나 유통, 제품 개발, 질병연구 등을 볼 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반해 농가수가 적어 수혜자가 적다는 이유로 그 중요성이 도외시되어 왔다. 이번에 구조조정이 될 때 농림부의 기본 골격은 변화가 없다고는 하지만 산하기관의 구조조정에는 어느 정도 변화의 기미가 감지되고 있는 가운데 그 대상이 양계업과 관련된 사업부가 많지 않을까 하여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21세기의 양계업을 이끌어 갈 농림부의 구조조정에 높은 관심과 기대를 거는 것은 아마도 새로운 마음 가짐으로 어려움을 해결하는 돌파구를 마련해 나가려는 양계인들의 최대 관심사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농림부 산하기관의 구조조정시 축종에 관계없이 골고루 발전이 되도록 세심한 배려와 아울러 전문성을 고려하여 양계업이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한 검토후에 조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1999축산박람회 개최 21C 한국축산 방향정립 계기

우리나라 축산업은 생산액 면에서 1997년말을 기준으로 할 때 농림업 중 23%를 점하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

축산업 중 양계업은 2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상업화된 측면에서 본다면 단연 양계업

이 선두 주자가 된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 같은 역사적 배경에 힘입어 농림업 중 단일 업종으로는 사상 처음 박람회 개최에 성공하여 지난 1991년부터 격년제로 1997년까지 4회 행사를 치른후 양계박람회 단독 행사보다는 종합적인 성격을 띤 축산박람회로 개최하자는 축산업계의 요청에 따라 1999년 11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일정으로 COEX에서 이번에도 사상 처음으로 축산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으며, 이미 상당한 준비에 착수하여 성공적인 행사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축산 박람회가 개최되는 1999년은 1천년대를 마감하는 해이면서 동시에 2천년대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하는 의미심장한 해라 생각된다.

그래서 축산업에 대한 기대 또한 매우 크다고 볼 수가 있다. 축산업에 포함된 모든 축종의 관련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열린 행사로 박람회가 개최되도록 유도를 해야 할 것이다. 모체가 양계업이 아닌데 간에 그것은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 축산업이 어느 특정의 부문만 살아남는다고 한국 축산업이 발전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축종이 골고루 발전하는 틀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다행히 이번에 1999 한국축산박람회가 개최되게 되어 큰 기대를 걸게 된다. 바야흐로 한국축산업은 도전과 시련기를 맞이하여 새로운 방향 전환이 되어야 할 시기를 맞고 있다. 수입량이 증가하는 문제와 소비의 정체, 생산비의 증가, 품질 고급화 지향이 제일 큰 관건이다.

이 같은 어려운 문제들을 과연 21세기에는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심오한 분석과 대처방법이 제시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한국 축산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면 한다.

전시회에 참여하는 기계·기구는 물론 사료, 약품, 가공에 이르기까지 형식적인 출품에 얽매이거나, 항시 열리는 박람회 짬으로 간주하여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축산인도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계란의 국제경쟁력 강화 채란업의 새로운 과제

금융위기 이후 생산기반의 감소로 채란업의 위상은 위축이 된 것만은 사실로 보인다.

이 여파로 난가는 상승하여 거의 1년간 생산비를 상회하는 수준에서 거레가 이루어져 그나마 살아남은 농가들의 줄이든 도산은 면할 수 있었다.

계란을 생산하는 채란농가의 가장 큰 고민은 국제경쟁력이었다. 국제가격보다 100% 가까운 우리의 생산비 때문에 수입개방과 관련된 이야기만 나오면 죄인인양 숙연해질 수밖에 없던 때가 그리 멀지 않음에도 환율의 상승으로 일시적인 수입제한 효과는 있었으나 환율이 안정되면서 서서히 수입량이 가공품을 중심으로 증가하다가 지난 2월에는 난데 없이 식란이 태국에서 약 32만개 분량이 도착되어 검역을 마친 현실을 보면서 식란 시장은 수입개방의 안전지대 짬으로 생각했던 채란인들께 일침을 가하는 결과가 되었다.

물론 수입계란의 통관후 비용은 90원선이 넘고 서울에 도착시키면 100원이 넘는다. 다행히 국내 난가가 하락하는 시점이어서 당장 채란업

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난가가 100원대 이상을 넘으면 언제든지 식란도 수입의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지난 1998년 1월 1일부로 중국산 가금산물의 수입이 금지되어 닭고기와 계란의 수입이 감소하였지만 언제 해제가 될런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므로 일단 중국산의 국내 반입도 머지 않아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 좋을 듯 싶다.

불행히 중국산 계란의 국내 도착가격은 미국이나 태국산보다 더 낮은 것으로 분석들을 하고 있는데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다. 수입계란과 국내산의 차별화 전략을 과연 있는가라는 질문에 속 시원히 답할 채란인들은 드물 것으로 보인다.

우선 유통기간에서도 많은 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생산된 날짜에 당일 유통을 확대하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의 농가에서 생산된 계란이 상인을 거쳐 납품업자에 넘겨져 매장에 도착하기까지 얼마나 소요되는가도 체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생면도 마찬가지이다. 세균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구실로 비위생적으로 공급이 되지 않는가도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 수입품은 적어도 두 번은 검역을 하여 반입이 되기 때문에 위생수준은 높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은 채란인 모두가 가장 염원하는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문제이다. 원자재의 수입의존도가 높다고는 하나 사양관리의 힘점 때문에 생기는 생산성 저하는 조속히 시정을 해야할 문제이다. 이 같은 난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계란 수입은 국내 가격변동에 따라 위협을 가하는 수단으로 작용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양계